

벤처문화재단(가칭), 조현정재단과 함께 장학생 선발

협회가 건전한 벤처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할 예정인 벤처문화재단(가칭)은 조현정재단과 함께 부모의 벤처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생 15명을 선발하여 총 1억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학교성적이 상위 15% 내에 들고 금연을 약속한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협회 조현정 회장은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이다. 재단이 장학생을 선발하여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장학생 선발기간은 3월 9일까지이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면접과정을 통해 선발한다. 자세한 절차는 재단사무국(www.chohyunjung.org, 02-3486-1234)으로 문의하면 된다.

협회, <벤처윤리경영실천가이드>, <벤처사회공헌백서>, <기사로 보는 벤처 2004> 발간

협회는 벤처기업 윤리경영강령 및 실천규범과 국내외 윤리경영 동향 등을 실은 <벤처윤리경영실천가이드>와 벤처기업의 사회공헌 현황 및 사례를 정리한 <벤처사회공헌백서>를 제작, 배포했다.

<벤처윤리경영실천가이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윤리경영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어 일선 벤처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데 좋은 참고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사회공헌백서>는 벤처기업의 나눔문화를 대내외에 알리고 독려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또한, 협회는 2004년 한해 동안 각 언론매체에서 조명한 벤처산업관련 기사를 모은 <다시 벤처다, 기사로 보는 벤처 2004>를 발간했다.



▲ 협회는 2월 18일 '중남미 IT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개최 준비를 위해 참가업체 및 대행사 관계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 협회 장흥순 회장(우)은 2월 14일 한경와우TV에 초청되어 정통부 진대제 장관(좌)과 중소·벤처 IT 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특별대담을 가졌다.



2005년 '캐나다 IT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가업체 모집

협회는 최대 ICT클러스터로 급부상하고 있는 캐나다 시장을 거점으로 북미 무선통신시장 진출을 위한 '캐나다 IT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합니다. 북미 진출을 희망하는 벤처기업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I. 사업개요

- **기간** : 2005. 5. 17(화)~20(금), 4일간
출국일 5. 16(월), 귀국일 5. 22(일) /시차적용
- **장소** : 캐나다, 토론토, National Trade Centre
- **모집규모** : 무선통신 기술 관련 벤처기업 30개사
(전시회 10개사, 시장개척단 20개사)
- **주최** : 벤처기업협회

II. 지원사항 및 참가비

- **협회 지원 사항** : 장소임차료, 부스장치비, 현지기업 섭외비, 버스임차 등 100%
- **업체부담** : 항공비, 숙박비 등 출장 경비
- **참가비** : 없음 (단, 선정 기업은 행사 디렉토리북 제작 실비 부담)

III. 마케팅 지원 사항

- 현지 Media를 통한 자사 홍보
- 사전 매칭된 현지기업과의 1:1비즈니스 상담(vs 캐나다 / vs 북미 기타)
- INKE 해외지부 회원들과의 비즈니스 상담 (INKE SPRING, Toronto와 연계)
- 전시 참가 바이어 현장 발굴 및 상담 지원

IV. 주요 섭외 예정 북미 기업 정보

미 국	Xplore technology, Bitstream, Symbol, Sybase 등
캐나다	Sesamenetworks, Diversinet, Zi Corp, Certicom, Versatile, Extremecctv, Redknee, Mdsi, Srtelecom, Sierra Wireless, Rim, Rogers, Airiq, Chartwell Technology, Wireless Matrix Corp., Intrinsic Wi-Lan, Waverider, CSI-Wireless, MMWT, Intermec, Redlinecommunications 등

- ※ 선정기업에 따라 섭외 기업 변경 및 추가 예정
- ※ 매칭 섭외기업은 선정기업에 한해 개별 공지

V. 참가신청

- **모집분야** : 무선통신(Wireless&Mobile) 관련 기술 분야 및 기타
※ 상세 분야 정보는 전시회 정보 참고
- **신청기한** : 2005. 4. 1(금)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 e-mail로 제출 (신청서는 www.kova.or.kr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 **담당자** : 해외사업팀 김혜린 대리(02-6009-4100, 내선 602, Fax. 02-6009-4115, E-mail: alloo@kova.or.kr)

INKE, 취리히 · 후쿠오카 · 모스크바에 신규지부 설립

협회의 해외비즈니스 네트워크인 INKE(한민족글로벌벤처네트워크)는 2월 16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취리히지부(의장 이구미), 후쿠오카지부(의장 김선민), 모스크바지부(의장 김태철)를 신설하였다. 취리히지부는 Arnold SKE Management社 이구미 대표를 중심으로 스위스 유력 IT 단체 관계자인 Walter Duss 등 현지 기업인이 지부 멤버로 참여하였다. 이대표는 10여 년 동안 한국-스위스간 엔지니어링 분야의 무역을 전문적으로 해왔으며, 그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양국간 IT분야 교류의 물꼬를 트겠다는 계획이다.

후쿠오카지부는 컨설팅 및 무역기업인 CHK HANKANG 김선민 대표가 구심점이 되었다. 후쿠오카, 오사카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국 IT 제품의 일본지출을 지원해온 김대표는 후쿠오카 지역에서는 인큐베이팅 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모스크바지부는 벤처기업으로서 드물게 러시아에 진출하여 입지를 갖춘 HMM의 김태철 대표를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김대표는 작년 노무현 대통령 러시아 방문시 경제사절단으로 수행할 만큼 러시아에서의 입지가 탄탄하다. 현재 러시아는 정부차원에서 풍부한 오일달러를 IT분야에 투자하고 있어 벤처 붐이 일고 있으나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진출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INKE 모스크바지부가 중심이 되어 첨단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로 발족 5주년을 맞는 INKE는 이들 3개 지부 설립으로 16개국 21개 지부가 되었으며, 연내 30개 지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구미 의장



김선민 의장



김태철 의장